

역사를 훼손하는 사진조작의 실상

알랭 주베르 지음 「20세기 그 인물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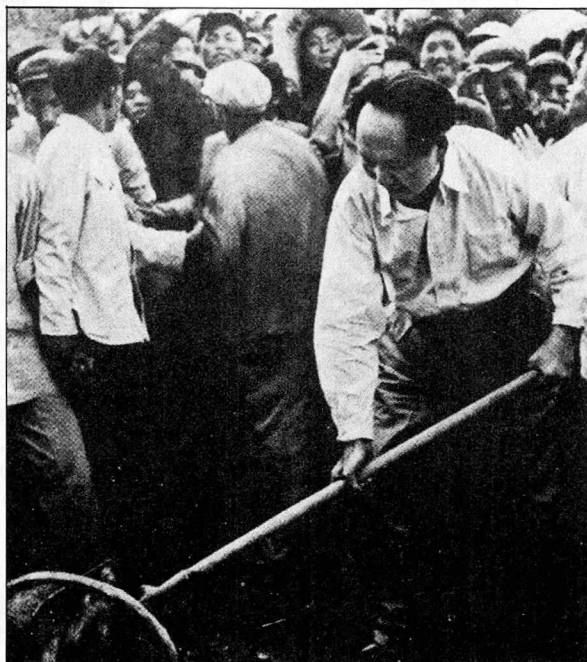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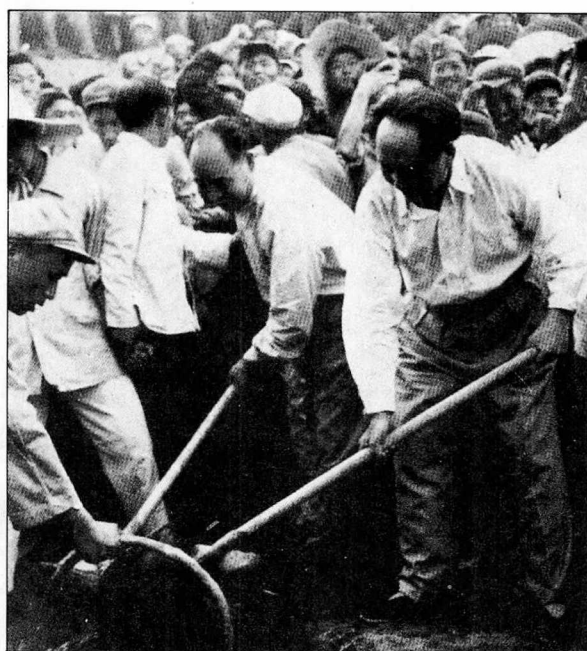
카메라는 사실을 재현한다는, 그래서 사진은 진실이라는 생각은 과연 언제나 유효한가.

사진에 대해 품는 일반인의 순진한 믿음이 수정돼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해 주는 책이 나와 흥미를 끌고 있다. 사진도서 전문출판사 눈빛에서 최근 펴낸 알랭 주베르의 「20세기 그 인물사」(윌터스 출판)가 바로 그것. '신분의 기록(LE COMMISSARIAT AUX ARCHIVES)'이란 원제로 1986년 프랑스에서 출간됐던 이 책은 사진에 의한 사실의 왜곡을 보여 주는 자료집으로, 20세기의 각 시기에 걸쳐 사진이 어떻게 조작되고 변조되어 정치적 효과를 얻고 있는가를 규명해 준다. 이를 위해 저자는 방대하게 수집된 사진자료들을 치밀하게 확인, 대조하여 사진정보 조작의 실상을 들춰내는데, 개중엔 우리들에게 아주 익숙한 '역사적' 사진들도 적지 않아 눈길을 끈다.

1920년 모스크바 붉은 광장의 연단에서 폴란드로 출정하는 병사들에게 연설하고 있는 레닌의 사진이 그 좋은 예가 된다. 스탈린 시대에 조작된 이 사진에는 레닌의 곁에서 연설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트로츠키와 카메네프의 모습이 삭제돼 있다. 두 사람 모두 스탈린에 의해 숙청된 인물들로 소련공산당의 '공식적인' 역사해석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모택동의 경우도 사정이 비슷하다. 원래의 사진(1958년, 오른쪽 위)에는 모택동이 평진 북경 시장과 함께 삼짚을 하고 있는데, 나중것(1976년, 오른쪽 아래)에는 평진의 모습이 사라져버렸다. 평진은 문화대혁명 시기인 1966년 강청 등의 4인방에 의해 숙청됐다.

'연출된' 사진이 역사적 사실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다. 1905년 1월 9일 페테르부르크의 동궁으로 행진하는 시위대를 향해 황제의 군대가 발포하는 모습을 담은 '피의 일요일' 사진은 1925년 비스코프감독이 만든 영화 「1월 9일」의 스틸사진일 뿐이다. 코사크 군대에 의한 1905년 6월의 '오데사 학살' 사진도 에이젠슈타인의 영화 「전함 포템킨」의 한 장면이 역사적 사실로 둔갑해버린 경우다. 1917년 러시아의 10월혁명을 알리는 사진 중 가장 유명한 '공격'이란 사진 또한 사실은 그 3년 뒤인 1920년의 10월혁명 기념 가두축제 때 한 극단이 연출한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선전포스터로 이용한 처칠의 사진은 다소 희극적이다. 군사기밀 시찰중에 경기관총을 들고 있는 영국 수상인 뉴스 사진(왼쪽 위)에서 처칠의 실



루에만 따로 올려내고 그의 머리를 경사지게 기울여 사악한 인상을 강화시킨 다음 흑백의 단순한 배경에 배치, '저격병'이란 사진(왼쪽 아래)을 만들어낸 것이다. 독일군은 이 몽타주 사진을 비행기로 영국 전역에 살포했다.

있는 사진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보를 조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반바지를 입고 있어 지도자의 체통에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히틀러의 사진 같은 것이 좋은 예가 된다. 사소한 것들로는 스탈린이나 모택동의 경우 손가락 사이에 끼워져 있는 담배가 삭제되기도 하고, 레닌의 지지분한 구두가 깨끗이

닦여지거나 상의와 바지의 헤진 실물이 말끔하게 처리되기도 한다. 영상조작의 대가로 일컬어지는 무솔리니는 얼굴의 표정이 때때로 근엄하거나 자상한 것으로 바뀌는가 하면, 콜로세움 같은 고전적 건축물을 초상사진의 배경으로 동원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사진조작들은 지도자의 위엄을 표현하는 데 봉사한다.

이밖에도 이 책에는 수정, 덧칠, 삭제, 트리밍, 말소 등 갖가지 방법으로 자행된 사진조작의 실례들이 풍부하게 제시되는데, 레닌, 스탈린, 히틀러, 무솔리니, 모택동, 카스트로

등 전체주의 국가의 절대권력자들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인상적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해진 사진조작의 예도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의 사진조작은 어떤 목적의 실현을 위한 체계적 행위라기보다는 대개 오보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독재국가의 그것과 구별된다. "정보왜곡, 역사의 재해석, 검열의 결과, 기억의 훼손 등"에 대한 '뒤늦은 관심'을 일깨우고 "폭정의 메카니즘으로서의 사진과 그림의 역할"을 깨닫게 하는 이 책에는 김일성의 사진도 몇 점 수록돼 있다.